



2026년 5월 10일(제1299호) 부활 제6주일

군종주보

발행 : 군종교구 홍보국 | 전화 : 02)749-1921, 군)900-7756 | FAX : 02)790-5768 | http://www.gunjong.or.kr | email : hongbo@gunjong.or.kr

말씀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면 그 사람의 말에 조금 더 귀 기울이고, 그 사람이 하는 말을 잘 들곤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너를 사모하고, 네가 나를 사모하기에 그러한 반응이 어찌면 당연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는 것이다.”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실천하는 이유가 마음의 위안을 얻기 위해서나 단순히 착하게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임을 알려 줍니다. 또한, 사랑이신 분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다르게 생각한다면,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을 때만 듣고 실천하고 싶을 때만 실천한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싶을 때만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상을 사는 순간을 돌아보면 예수님께서 먼저 사랑하셨음을 생각하고 느끼지만, 내가 먼저 사랑하기가 참으로 어려운 과제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당신 사이에서 흘러넘치는 완전한 사랑이

신 성령을 약속하십니다. 그분께서는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 우리 내면 깊은 곳에서 끊임 없이 움직이시고, 역동하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를 당신의 사랑으로 이끌도록 말입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나 기도할 때, 성경을 읽을 때 절실히 필요한 것이 바로 보호자이며 협조자이신 성령 하느님이십니다. 그분께서는 우리 삶의 모든 곳에서 길잡이 역할을 꾸준히 하고 계십니다. 그 성령께 청하며 길이에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하느님을 향해 나아가는 거룩한 신앙 여정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한 주간 그분의 사랑을 느끼는 따뜻한 시간이 되어봅시다.

“내 계명을 받아 지키는 이야말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요한 14,21)



조영래(하상비오로) 신부
동해(제22보병사단) 성당 주임

제 1 독 시

사도 8,5-8.14-17

회답송

◎ 온 세상아, 하느님께 환호하여라.

제 2 독 시

1베드 3,15-18

복음 반호송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도 그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가서 그와 함께 살리라. ◎

복 음

요한 14,15-21

영성제송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켜라.

내가 아버지께 청하면, 아버지는 다른 보호자를 보내시어,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알렐루야.

